

전남도·시군 건설공사 ‘부적정 행위’ 무더기 적발

감사원 감사 결과 ... 완도항 마린나 공사 등 17건

예산 과다집행·업무태만·설계변경 등 사례도 다양

전남도와 일부 시·군이 지난 2010년 이후 3년간 각종 건설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업무 태만, 도급 예정가격 과다 산정, 수의계약 부당 요구, 부적절한 설계 변경, 하도급 계약 관리 부적정 등 그 사례도 다양했다.

감사원은 8일 “전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4일부터 20일인 17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전남도 및 시·군의 부적정 사례 17건 등 모두 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8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난해 10월 완공된 완도항 마린나시설 공사와 관련 설계 및 시공 감독 업무를 맡은 전남도 직원 2명은 설계공사 및 하도급 공사 관리 태만, 도급 예정가격 과다 산정 등으로 징계를 통보 받았다. 이들 중 한 직원은 철근 콘크리트 부잔교에 허용균열인 0.3mm를 초과하는 균열 139개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했다. 감사원은 시공사에 영업정지 등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또 함평군은 2004년부터 요트계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사업비 56억6800만원의 ‘해안 마린나 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요트 항해에 필요한 항로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데도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사업비 9억9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직원은 해양구조물 설계를 할 수 없는 업체에 소액 계약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고 부실한 설계용역 감도로 감사를 마친 시점까지 사업비 39억8600만원이

낭비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함평군수에게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설계·시공·감리 부실에 따른 손해 부담 등 사업비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히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주의 또한 요구했다.

전남도,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장흥군,

해남군, 영광군 등은 13개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지 않아 공사비를 절감하지 못해 주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화순군 대촌3교 교각 시공 등 부적정, 전남도 방음벽 기초단면 설계변경 미조치, 목포시 산정 나들목 교대 시공 등 부적정, 전남도 호안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계 미비, 하도급 계약 관리 부적정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한석기자 chadol@



한국형 무인기 ‘송골매’ 비행훈련

8일 오전 경기도 양주군 제140정보대대 공중정찰중대에서 한국형 육군 무인기 송골매의 비행훈련이 실시됐다. 송골매는 전장 5m, 폭 6.5m로 속도는 시속 150km, 작전반경 100km, 체공시간은 4~5시간이며, 주야간 일체형 자동추적기능을 갖춘 감지기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8일 오전 경기도 양주군 제140정보대대 공중정찰중대에서 한국형 육군 무인기 송골매의 비행훈련이 실시됐다. 송골매는 전장 5m, 폭 6.5m로 속도는 시속 150km, 작전반경 100km, 체공시간은 4~5시간이며, 주야간 일체형 자동추적기능을 갖춘 감지기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한·호주 FTA 정식 서명

‘미래 비전 성명’ 채택도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토니 에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박 대통령과 에벗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 이어 두 번째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정치·안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창조경제·규제개혁, 에너지·자원 등 경제·통상,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G20(주요20개국) 협력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두 정상은 우리 측 중심적 산업통상자원장관과 호주 측 앤드루 로브 통상부 장관과의 한·호주 FTA 정식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서명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1번째 FTA(발효 FTA 9개, 서명 FTA 2개)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도는

전세계 GDP의 57.3%로 확대됐다.

또 두 정상은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을 채택했다. 총 22개항으로 구성된 이 성명은 국방, 안보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성명에서 양국은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양국 안보·국방 분야 협력의 청사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EAS,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한 지역 안보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또 대량과파무기(WMD)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사이버·우주 안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안보를 논의할 한·호주 사이버정책대화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취약계층 가구

LED 조명으로 교체

광주시는 8일 “25억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백열등과 형광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LP 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하는 등 에너지 복지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LED조명 교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5000여가구와 복지시설 24곳이며, 백열등을 LED 전구로, 노후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옥내조명 선로 보수 등도 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생산·판매가 금지된 백열등과 노후한 형광등을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해 에너지를 30~50% 절감하고 LED조명 민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것이다.

이와 함께 LPG 가스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987가구의 낡은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중간밸브)를 추가로 설치해 화재와 폭발사고의 위험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복지사각 3407명 자체 발굴

광주시, 5억8000만원 지원

광주시는 8일 “3월 한달동안 복지사각자대 특별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3407명을 발굴, 5억87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3407명 중 729명엔 긴급복지로 4억1600만원을, 654명엔 민간후원 등을 통해 1억71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59명(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지원하고, 1775명은 현재 재산 등을 조사중이다. 계층별로는 노인이 8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 부모 가정 452명, 주소득자 사망 343명, 장애인 323명, 정신질환 의심자 69명 등의 순이었다.

광주시는 최저생계비 지원 기준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한 ‘긴급복지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중저위 시민을 대상으로 ‘광주형 기초생활 특별지원 사업’ 등 진행하는 등 전국 최초로 ‘위기가정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문순태 칼럼

4월 7일은 신문의 날이다. 58회 신문의 날 표어는 ‘시대가 빨라질 때 신문은 깊어 집니다.’이다. 신문의 날, 나는 23년간 신문기자생활을 하면서 써 오았던 신문 스크랩을 정리했다.

시리즈물과 칼럼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 불태워 없애고 두 쪽지만 남겼다. 70~80년대 엄혹했던 시절, 행간에 민주주의 염원 같은 시대적 함의(含意)를 숨기느라 가슴 조이며 썼던 칼럼들이, 지금 읽어보니 아무런 감동도 없었다.

생선 씹는 냄새만 났다. 생명이 없는 글을 남겨두고 싶지가 않았다. 시간은 불안했던 역사의 아픈 흔적마저도 빛을 바래게 하는 것이기도 모른다.

남겨두기로 한 두 쪽지는 <말바닥>과 <새 봄에 말한다> 시리즈다. <말바닥>은 내가 대학교 때 좋아했던 막심 고리키의 작품(<말바닥에서>)의 제목을 딴 것이다.

1966년, 일사 다음해부터 시작한 <말바닥>에서는 ‘다리 밑 가족’ 역 대립실 가족’ 등 집이 없어 은신할 곳을 찾아 부초처럼 살아가는 가족의 삶을 취재했다. 그 시절에는 광주천 모든 다리 밑에는 방울

두 번째 만남, 광주 민주화 투쟁의 대부 홍남순 변호사(67)는 “법은 천사의 손처럼 부드럽기만 하며, 정치가는 역사를 바르게 이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도 심판을 받지 않으면 결국 하늘이 반드시 징벌한다.”는 장자의 말을 인용해 군부독재를 경계했다.

문익환 목사(65)는 “정의와 사랑이 없는 나는 무(無)이고 우리가 겪은 고난은 값진 역사”라면서,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똥을 먹으면서 외치고, 동료직원들을 위해 피를 흘린 그들에게 인권이 무엇인가를 배웠지요. 심자가를 진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문정현 신부(41)는 부활의 참다운 의미는 민중의식의 승리라면서, 가진 자 없는 자를 쳐다볼 줄 알아야한다고 했다. “지하촌 신부와 같이 김지하 구명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서 김지하 시인을 만났지요. 그때 김 시인이 내게 <장일담> (張日諱)과 <말뚝이>라는 시를 구상했다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장일

퇴물기자의 오래된 스크랩

만들어 살거나 공동묘지 주변에 움막을 치고 사는 가족들이 많았다.

<새 봄에 말한다>는 1980년 3월3일부터 매주 토요일 전면에 실은 인터뷰 시리즈다. 꽃이 피는 봄이 왔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서늘 퍼려 공포로 공포 얼어붙어 있었다.

신군부 독재시절, 불안과 긴장 속에서 국민들이 정치적 불을 예타게 기다리던 때였다. 나는 이 때 법정 스님, 문익환 목사, 홍남순 변호사, 문정현 신부, 지정환 신부, 김관석 목사, 이훈섭 가톨릭농민회 감사, 김영업 해직 근로자, 최현식 동학기념사업회 회장 등 민주화 투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을 찾아 다녔다.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때만 해도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취재였다.

1980년 3월 3일, 송광사 불일암에서 첫 번째로 만난 법정 스님(당시 48세)의 첫마디는 ‘진정한 봄은 민주주의 꽃이 피는 것’ 이라면서 새 역사의 문이 열리는 진정한 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 같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한다.” 며 은유적으로 군사독재를 비난했다.

답은 백정 아버지와 참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했고, 풀러나자 계곡산에 들어갔지요. 그는 세상의 도둑들과 소매치기와 거렁뱅이들을 모아 놓고 ‘하늘은 밥이다. 벌은 밥이다.’라고 소리쳤답니다. 하늘은 혼자만 볼 수 없듯이, 밥도 혼자만 먹을 수는 없는 거지요.”

군사정부로부터 추방 위기에 놓여 있었던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는 한국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했으나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관석 목사(58·당시 CBS사장)는 진정한 언론은 역사의 칼이어야 하며 언론이 역사의 칼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언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봄에 말한다>는 80년 3월3일에 시작해서, 5·18을 일주일 앞 둔 5월 10일에 끝났다. 이 인터뷰 시리즈를 취재하는 동안 나는 하루하루를 긴장과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로부터 34년이 흐른 2014년의 봄, 산과 들에는 꽃이 흐드러지고, 도로마다 꽃구경 인파로 넘치고 있다. ‘언론의 자유’ 대신 ‘언론의 깊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이 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은 “하늘은 밥이다.” 라는 말이다. 이 시대의 진정한 봄은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차별 없이, 함께 하늘을 보고 함께 밥을 먹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소설가>

15P - 13층

- 실평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 매매가 - 3천2백만원

29P - 사무실 적합

- 실평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 - 전체 올수리

- 실평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 2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500만원

(주)오천경매

대표, (062)525-5000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1대1 개인지도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독/공동투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입찰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비용으로 처리

남/직원 모집	남:35세 이하, 운전 및 기타
경매 배우면서 일하실 분	여:25세 이하, 경리 및 기타
근무조건 / 급여는 상담후 결정합니다.	